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칼럼2018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6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SPECIAL 사진으로 보는 2018



180109_케냐 의료선교



180110_산소치료기 도입



180117_2주기 인증 획득



180211_생활의학 아시아학회



180213_인증마크 현판식



180321_화재대피훈련



180321_화재대피훈련2



180328_행복지킴이 콘서트



180409_뉴스타트 캠프



180416_필리핀 의료 선교팀



180418_CS교육



180430_포크선공연



180509_감염관리의 날



180509_감염관리의 날2



180509_감염관리의 날3



180509_정약용 뮤지컬



180514~19_직원신앙부흥회



180608_필리핀 의료 선교



180608_필리핀 의료 선교2



180609_필리핀 의료 선교3



180611_필리핀 의료 선교4



180703_17주년 개원 기념식



180711_한중문화교류 공연1



180711_한중문화교류 공연2



180730_미션데이1



180730_미션데이2



180730_미션데이3



180730_미션데이4



180810_국제선교대회 홍보



180912_낙상예방교육



180913_심인희 사무국장 표창



181013_치유전도집회



181018_드라마 촬영



181018_임상병리실 재개설



181024_관리과 창고 착공



181024_물리치료실 이전



181114_문학의밤



181114_환우합창단 공연1



181114_환우합창단 공연2



181117_삼육대 신학과 학생 방문



181128_QI활동사례 발표



181204_TMS구입



NEWS 에덴의 소식

삼육대학교 신학과 건강원리 수강



지난 11월 16일~17일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 신학과(지도교수 김원곤) 건강원리 수강생이 에덴요양병원을 방문해 뉴스타트 기본원리 교육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환우를 위한 뉴스타트 치유집회를 참관하고 김남혁 병원장과 정재명 홍보기획과장의 뉴스타트 원리와 실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건강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도립 안동노인병원 이사장 방문

에덴요양병원의 암 치료 시스템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미국 시카고 찬양교회 김윤자 장로가 엄보석, 문치양 목사의 인솔로 방문했고, 도립 안동노인병원, 안동유리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대전시립요양병원에서 이사장 및 병원 주요 부서장들이 방문해 암 환우를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 4회 QI 경진대회

11월 28일, QPS실(팀장 김난경) 주관으로 제 4회 QI 활동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네 팀은 그동안 실행해 온 활동들을 통해 개선되어 효과가 입증된 사례들을 발표했다. 김남혁 병원장, 나호림 의무부원장, 이승희 경영관리실장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확한 환자 확인을 통한 환자안전 향상'을 발표한 3층 간호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층 간호부(낙상예방 활동을 통한 낙상발생률 감소)가 우수상, 관리과(화재안전 시스템 개선)가 장려상, 원무과(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및 향상)가 참가상을 수상했다. 특히 3층 간호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중인 김준섭, 박은하수 부부선교사에게 최우수상 상금 전액을 후원했다.



경두개 자기자극기 구입

1층 물리치료실에서 TMS(경두개 자기자극기)를 도입하여 수면장애가 있는 환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11월 TMS를 3주 간 임대해 환우들에게 무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체험에 참가한 대다수의 환우에게서 수면 개선 및 숙면의 효과가 나타났다. 1회 20분 씩 총 7회를 체험한 한 환우는 "취침 도중 침대에서 떨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숙면을 취할 정도로 개선되었다"며 만족을 나타냈다. 병원은 12월 3일 TMS를 구입하여 환자치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직원동정

♠ 수고하셨습니다 ♠

이소라(원무과) 10월 31일 부
박선민(간호부) 11월 30일 부



행복칼럼[16] 원목실장 류태희

“예수님께 속한 사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막 9:41)

‘I BELONG TO JESUS.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카카(Ricardo Izecson Dos Santos Leite, 1982년 4월 22일~)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태어났다.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키 186cm, 몸무게 76kg의 이상적인 체격의 공격형 미드필더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펠레에 비길 만한 백인 선수라 하여 ‘하얀펠레’라 불릴 만큼 우수한 선수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월드컵에 2연속 출전했고, 2007년 발롱도르와 FI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08년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중 한 사람이었다.

카카는 8살에 상 파울로 구단에 입단하여 15살에 유스팀 명단에 들었고, 대회 우승을 경험했으며, 2001년 1월, 리그에 데뷔하여 27경기 12득점을 기록하고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선보여 유럽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다.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다. 18세였던 2000년 9월,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척추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축구선수는 커녕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차분하게 기도하며 인생의 10단계 미래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1. 다시 축구를 한다.
2. 상 파울로 팀에 입단한다.
3. 예비팀 합류한다.
4. 주전선수가 된다.
5. 핵심선수가 된다.
6. 청소년 국가대표가 된다.
7. 국가대표가 된다.
8. 월드컵에 참가한다.
9. 브라질 팀의 주전이 된다.
10. 유럽팀(이탈리아나 스페인 명문구단)에 입단한다.

그는 세계적으로 성공확률 2%도 되지 않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활훈련을 통해 2001년 3월 다시 그라운드를 밟았고, 2002년 월드컵에 참전했으며, 2003년 8월 AC밀란으로 이적했다. 인생의 10단계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린 지 3년 만에 10가지 목표를 다 이룬 카카는 그로부터 4년 뒤 세계 최고 축구선수라는 더 큰 꿈을 실현했다.

AC밀란이 챔스리그 우승을 달성하고, 클럽월드컵, 유럽수퍼컵에서 승리를 썩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 축구구단들이 카카를 자기 팀 선수로 영입하려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 구단은 무려 1억 파운드(한화 약 2000억원)의 이적료와 세 후 1360만 파운드(한화 약 276억)정도의 세계 최고 연봉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로 엄청난 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카카는 이를 거절한 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AC밀란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을 마다할 수 있었을까? 사상 최고가의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었던 카카가 맨체스터 시티의 제안을 거절한 데는 그의 믿음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AC밀란에서 그는 구단을 먹여살리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된다. 그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고, 잦은 부상을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뛰었다. 03-04시즌에 14골, 04-05시즌에 10골, 05-06시즌에 21골 2어시스트, 06-07시즌에 21골 10어시스트, 07-08시즌에 20골 12어시스트, 08-09시즌에 17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AC밀란을 최고의 팀이 되게 하였다.

카카는 경기에서 ‘I BELONG TO JESUS(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뛰었고, 골을 넣을 때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걸 유니폼을 벗고, 글씨가 보이도록 하면서 손을 올려 기도 세리머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경기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전세계에서 수억 명이 생중계로 보았다. 카카의 축구화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 ‘JESUS IN FIRST PLACE(예수님은 나의 첫번째이십니다)’



더 멋진 것은 2007년 최고의 선수가 되어 인터뷰 할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나중에 축구선수를 관두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전도하는 자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이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 되어 질병과 죽음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였다. 그렇지만 카카 선수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후부터는 질병에서부터 회복과 치유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축복으로 받게 되었다.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밝아오는 새해 2019년에도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린다.

- ★감동나누기 : 글을 읽고 느낀 소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하여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에덴요양병원 원목실(031-590-7591) 또는 이메일 (eckclth@hanmail.net)



LETTER 사랑의 편지

엄마에게

엄마, 나야 헤림이.
 엄마에게 편지 쓰는 것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내가 아기일 때 엄마 껌딱지라서 엄마 떨어지는 것 싫어해서
 엄마 회사갈 때 엄청 울었다고 했지?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
 는 동안에도 내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돈다고 했지? 퇴
 사를 생각할 정도로 잔병치레가 많았던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엄마, 내가 아기일 때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내가 초
 등학교 때 내 친구들은 집에 컴퓨터가 있는 우리집을 부러워했
 는데 난 오히려 집에 엄마가 계시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초인종을 누르면 엄마가 문
 을 열어 주고, 소나기 오면 엄마들이 우산 들고 찾아오는 친구들
 이 얼마나 부럽던지... 조금은 서럽기도 했어.

일요일에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면 엄
 마 아빠가 문 열어 주는 날이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
 엄마 아빠가 회사 다니는 것이 모두 언니랑 나 배 굶지 않고
 등 따시게 살게 해 주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게 해 주
 려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임을 알면서도...

엄마, 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서 항상 고마워. 어릴 때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들 부러워하며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심통 많이 부리고 짜증내는 나를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고마워.

내가 몇 년 전 기침을 오래하다가 결국은 대학병원에 가서
 별의별 검사는 다하고 조직검사 하려고 상담 받던 날 엄마가
 평평 울면서 의사선생님께 그동안 엄마가 잘 해주지 못해서
 아픈 것 같다고... 엄마 우는 거 처음 봐서 놀라기도 하고 내
 마음도 무척 아팠어.

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
 러 내가 말썽 부렸는데... 엄마 아빠가 나 안 보는 새벽에
 많이 울었다고 했지? 앞으로 그러지마. 내가 아픈 거 엄마 아
 빠 때문이 아니야.

암 세포가 뇌에 전이된 상태여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던 날, 입원해서 의사선생님이 보호자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같이 있게 해서 미안해.

쓰러진 날 나는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눈 떠보니 병원이더라.
 엄마 아빠의 갑자기 늙어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
 팠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렸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많이
 힘들고 우울했어.

쓰러져 병원에 3주 가까이 입원해 있을 때 병원 밖으로 나
 가고 싶은데 정문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되는데 병원에 갇혀
 있는 내가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고 힘들었어. 그래서 엄마 아
 빠에게 진상짓 한 거 미안해. '하지 말아야지' 속으로 되뇌면
 서도 멈추지 못한 것 후회가 돼.

함암하면서 속 안 좋다고 토하고, 운동해야 하는데 몸이 축
 쳐져서 계속 누워만 있고, 좋아하는 음식 해 주어도 먹지 못하고
 토하고 그러다가 울고 성질부리고... 엄마 정성 알면서도 못 먹
 겠다고 투정하고 계속 맘 아프게 했던 거 미안해.

엄마랑 아빠랑 퇴직해서 이제 좀 쉬어야 하겠다 했는데
 바로 내가 아파버렸어. 엄마 아빠가 그리던 전원생활도 물거
 품이 되어 버리고 다시 일하게 만들어 버려서 내가, 내 스스로
 가 너무 짐 같고, 그래서 가끔 나 혼자서 울곤해.
 내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닌데 하고...

내 어릴 적 꿈이 우리 가족 세계일주 시켜주는 거였는데 세
 계일주는 커녕 해외여행도 못 보내 주네. 내가 회복되면 일 열
 심히 해서 엄마 아빠랑 언니네랑, 할머니랑 꼭 해외여행 보
 내 줄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항상 미안하고, 사랑해요.

막내딸 헤림이 올림



FOOD

몸에 좋은 제철 과일

귤



귤은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이기약(理氣藥, 기를 조화롭게 잘 소통시켜주는 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의 막힌 기를 뚫어주고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한다. 귤은 귤껍질, 귤락(껍질 안 흰 부분), 과육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귤껍질 역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껍질인 진피에는 비타민C가 과육보다 4배 정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귤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예방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주로 빨간색과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당뇨나 류마티즘, 폐암, 식도암, 자궁암 등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체내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체내에서 비타민A로 바뀌는데, 이로 인해 면역체계 기능과 시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비타민C와 구연산도 풍부하여 감기에 방과 면역체계 증진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쌓인 피로를 억제해 주기도 한다.

TODAY 따뜻한 하루

타조는 멍청하지 않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정확성은 그리 신뢰할 만하지 않다.
- 이드리스 샤희 -

타조는 적이 가까이 오면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데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을 가려서 천적이 안 보이게 되면 천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사람들은 타조가 워낙 머리가 나빠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은 채 몸을 다 숨겼다고 착각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조의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조의 평균신장은 2m가 넘습니다.

적이 나타나면 그 커다란 몸을 숙여 적의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머리를 숙이는 더 큰 이유는

땅으로 전해지는 소리를 듣고 주위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타조는 보기보다 판단력이 우수하고 청력이 매우 좋은데 땅 속으로 머리를 넣어 접근하는 육식동물의 발소리를 통해서 상대의 크기와 위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탐색을 통해 달아나야 할 방향을 재빨리 파악하고 시속 80km의 속도로 달아날 수 있습니다.

이솜우화 ‘개미와 베짚이’ 에서 베짚이는

놀이 좋은 여름날 왜 놀지 않고 바보같이 땀 흘리며 일하냐고 개미를 놀립니다. 하지만 개미의 행동 의미를 알고 있다면 누가 바보인지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얕잡아 보고 낮게 판단하며 비웃을 때,

어쩌면 그 비웃음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비웃고 싶다면,

혹시 진짜 바보가 되는 것은 내가 아닌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먼저 생각해 봅시다.



FIGHTING 화이팅 릴레이

관리과장 변성철

근래에 들어 심신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환자의 심리와 정신의학적 치료 간, 생리학과 병태생리과정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한 중년의 아버지가 휠체어에 의지해서 에덴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풍으로 마비가 온 분이었는데, 뉴스타트 캠프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주변 지인의 권유로 오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곳에 오기 10여년 전, 외동딸을 곱게 곱게 잘 키워 대학에 보내었는데 딸아이는 대학에서 장애인을 돕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한 장애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게 됩니다. 외동딸을 곱게 키우다 딸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고 할 때 아버지는 반대했으나 두 사람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중풍에 걸리게 되었고 그 후로 10여년 간 딸과 사위를 만나지 않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 에덴요양병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요양병원에서 이 아버지는 뉴스타트 캠프를 통해 스트레스, 화병, 마음 속 풀지 않고 있는 감정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우고 안식일에 간증을 하게 되었고, 간증 후 성령의 감동하심과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로 마음이 풀려 딸에게 용서하겠다는 전화를 하게 되었고, 그 시로 달려온 딸과 사위를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때 중풍으로 마비가 되었던 다리가 풀리며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적인 실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참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에덴요양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이야기들 중에 아프고 서럽고 언짢고 괴로웠던 기억들을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이곳에서 나누고 서로를 위해 용기주고 기도해 주면서 지낸다면 몸의 치유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우분들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화이팅 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입니다. 변성철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간호과장 김난경님'입니다.

지난 호 숨은그림찾기 정답



수기공모

환우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 에덴에서 경험한 행복이야기
- 가족, 환우를 향한 사랑의 편지
- 감동을 주는 병실 에피소드
- 그 외 자작시나 수필 등

문의 홍보기획실 ☎610

칭찬합시다~

‘김기남’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쓰레기 수거하시는 김기남 장로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묵묵한 표정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근면함과 성실하신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 209호 목성혜 -

‘김영봉’ 전도사님을 칭찬합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병실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 104호 조은영 -



